

사사기 6:11-18 믿을 포도주 틀에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시대에 살았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와 수탈을 당하였다. 백성들은 대부분 산으로 도망하여 토굴을 파고 두더지 처럼 생활하면서(2),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3). 그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가 미디안의 눈치를 보며 믿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부르셨다. 그리하여 300명의 작은 수로 135,000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쳤다.

자존감의 회복(12)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넉넉한 용사라고 한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깁보르 헤아일'이라고 해서 능력있는, 유력한 자, 재산과 덕망과 세력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 부른 기드온의 형편은 여기에서 거리가 멀다.

11절에 보면 그는 포도즙 틀에서 물레 믿을 타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이 장면에서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6장 처음 시작할 때 미디안 족속을 말하면서 그들이 타작할때 짚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약탈하는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족속으로 소개합니다.

기드온은 열등감에 사로 잡힌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기드온 뿐이겠는가? 모든 이스라엘이 그러했을 것이다. 그의 생활 태도 즉 포도즙 틀에서 조심스럽게 타작하는 그의 생활을 모습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을 만든다. 다른 말로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이라 부른다.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노예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힘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린다. 이것을 흔히 '노예근성'이라고 한다. 본문에서 미디안에게 수탈(收奪) 당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14) 했을 때 화들짝 놀라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15)고 반응한다. 어 느덧 그도 미디안의 압제와 수탈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네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12)고 했다. 여기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른 하나님 사자의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에 비춰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15)고 했다. 집안도 별 볼일 없고, 그 별 볼일 없는 집안에서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삼았다(14)는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6장에 나타난 그는 '의심'도 많고(17), '겁'도 많고(27), '소심한' 사람(36,39)이다. 결코 용사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의심도 많고 소심한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다. 장차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 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러한 믿음만이 나를 과거의 낮은 자존감에서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15:10)



HAPPY FATHER' DAY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